

# 1회성 기부는 이제 그만 “꿈을 이뤄드려요”... 착한 기업들의 ‘드림 마케팅’

**공유가치 창출... 전 세계로 확산**  
CJ그룹, 신인작가 지원 ‘오픈센터’ 오픈  
파나소닉코리아, ‘대학생 챌린지’ 진행  
아디다스코리아, 소외계층 스포츠 교육



오픈센터 /CJ그룹

최근 가맹점 대상 갑질, 사내 성추행 등의 이슈가 불거지며 많은 기업들이 신뢰도를 잃었다. 이에 반해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착한 기업’들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의 ‘착한 행보’가 최근 후원금, 물품 기부 등의 사회공헌활동에서 기업들의 특성을 살린 공유가치창출(CSV)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경영전략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보다 진화된 형태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CSV 프로그램 중에서도 현실에 부딪혀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드림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CJ그룹은 CSV 트렌드를 가장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다. CJ그룹은 ‘주변의 다양한 협력업체 및 사회 구성원과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책무’라고 강조해 온 이재현 회장의 철학에 따라, 국내 기업 중 최초로 CSV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CJ그룹의 창업이념인 ‘사업 보국’은 사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CSV와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은 세계적인 경제경영 월간지 포춘(Fortune)지가 선정하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 50’에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선정됐다.

국내 젊은 문화예술인들 후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CJ E&M과 CJ문화재단이 함께 드라마·영화 창작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신인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창작 및 데뷔 지원 공간 ‘오픈 센터’를 상암동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에 오픈했다. ▲신인 드라마/영화 작가 모집 ▲대본/시나리오 기획개발 ▲영상 제작 ▲편집 및 비즈매칭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 창작자 육성 및 데뷔 지원사업이다. CJ E&M과 CJ문화재단은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모두 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파나소닉코리아는 지난해 ‘제 9회 파나소닉 대학생 홍보대사 PR 챌린지’를 진행하며 대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파나소닉 대학생 홍보대사 PR 챌린지는 올해 9회째를 맞이할 만큼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직접 파나소닉 브랜드를 홍보하고 기획안 작성부터 캠퍼스 내 PR까지 직접 실행하는 프로젝트다.

홍보 혹은 광고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활동을 통해 미리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고, 특별한 추억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파나소닉은 대상 1팀에게 1000만원의 상금과 파나소닉 일본 분사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생들이 자유로이 꿈을 꾸는 것을 적극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수상한 13개 팀에게는 2학기에 진행되는 대학생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CSR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전문적인 스포츠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아동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는 ‘아디다스 마이드림 FC’ 프로그램을



아디다스 마이드림 FC 축구 클리닉 /아디다스



제9회 파나소닉 대학생 홍보대사 PR 챌린지 시상식 /파나소닉

진행하고 있다. 아디다스 마이드림 FC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전문적인 스포츠 교육을 접하기 힘든 지역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스포츠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구자철 선수와의 만남을 통해 아이들이 축구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스크립야구 브랜드 스크라이크존을 운영하는 뉴턴콘텐츠의 기업 비전은 ‘상생’이다.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넘어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를 위한 ‘상생’에 힘쓰고 있다.

스트라이크존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17 박찬호 유소년 야구 캠프(캠프 61)’를 후원하며 야구 꿈나무들에게 야구에 대한 꿈을 지원하고 있다. 캠프 61은 박찬호 선수와 국내의 프로선수들

이 코치진으로 참여하는 유소년 야구캠프로, 프로식 훈련, 부상방지를 위한 관리 교육 그리고 프로 선수들과의 1:1 멘토링 세션 등을 통해 야구 꿈나무들이 야구에 대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2017 독립야구리그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가해 독립리그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야구단에서 방출되거나 진출하지 못한 야구인들이 야구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꿈꾸고 프로야구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야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서울저니맨 외국인구단은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에 소속 투수 이효준을 첫 입단 선수로 배출했다. 이효준은 서울저니맨 외국인구단에서 6개월의 훈련 과정과 독립리그를 거친 뒤 우수한 평가와 함께 최종 입단을 확정지은 바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범금융권 신년인사회**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의 건배사에 맞춰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허권 금융노조위원장, 최홍식 금융감독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종구·국민의당 박선숙·더불어민주당 최윤열 의원, 광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연합뉴스

## 이주열 “금융시스템 안정성 공고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회복되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금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해 우리 금융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나가는 데 계속 힘써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10년

째를 맞이한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경제는 이에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한층 공고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어 우리 경제가 이 같은 도전을 극복하고 모처럼 맞은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우리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정부 ‘규제개혁’ 약속에 기업 ‘투자확대’ 화답

**재계 신년인사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대비

경제계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대비해 공정경제와 상생경영으로 변화를 위한 단추를 잘 꿰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에는 개선할 수 있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이를 찾아 바꿔주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혁신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기업이 인프라 투자와 인재양성에도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정·관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이 불참하면서 조출한 분위기에 진행됐다. 노동계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우리는 3%가 넘는 성장과 무역 1조 달러 등 당초 기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했으며,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도 열리게 된다고 한다”며 “선진국 진입의 관문으로 불리는 이 고지를 우리가 불



앞줄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손경식 CJ그룹 회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과 반세기 만에 오른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자람이자 커다란 성취”라고 말했다.

이어 “3만 달러 수준이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라고 지적해 주신 분들도 많았다”며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 그리고 기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것만이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많은 과제들이 ‘이해관계’라는 허들에 막혀 있어 안타깝다”며 “구성원들 간 신뢰를 단단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타협해서 ‘변화를 위한 단추들’을 잘 꿰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기업들이 성숙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국민들의 눈높

이에서 보다 솔선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은 기업들이 많은 일들을 새롭게 벌일 수 있게 설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엄중한 안보현실과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 같은 악재 속에서도 3%대 성장을 3년 만에 회복했다”며 “우리 경제는 터널을 벗어난 듯 하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올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들어선다”며 “3만 달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해 혁신성장을 이뤄 4차 산업혁명에 조속히 진입해야 하며 수출선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